

# 지지율 뚝 뚝...출범 한달 김기현호 잇단 악재에 고전

최고위원들 잇단 설화 수습 '실기' 4·3 추념식 불참 박정희 기념관 방문 집토끼 잡기 행보에 비판 목소리 내년 총선 앞두고 위기감 고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잇단 악재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지율은 전통 지지층인 '집토끼'만 간신히 부여잡고 박스권에서 하락세여서,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당내에서 점증하는 분위기다. 지난 8일 출항한 '김기현호(號)' 한 달간 김 대표 리더십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인 중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이 연거푸 설화를 일으킨 탓에 컨벤션 효과는 커녕 지지율이 내리막이었지만 김 대표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며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전격 해촉한 것 역시 논란을 키웠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제는 홍준표 지지자까지 밀어내면 당 지지율이 어떻게 남아나느냐"며 "김 대표 '연포탕' (연대·포용·탕평)은 '연대포기탕' 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1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재원 설화부터 엄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홍 시장도 전광훈에게 가야 할 화살을 김 대표에게 들렸다"며 "당이 총선 컨셉대로 잡지 못하고 어젠다 세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 승리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중도층에 소구하는 행보보다는 '집토끼 지키기'에만 더 역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고, 이번 주에는 대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제주 4·3 75주년인 지난 3일 추념식에 불참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후보 도시 부산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무단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지만, 야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둘러싼 비판과 지적을 복식시킬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당장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과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김 대표를 향해 더욱 거친 쓴소리를 예고했다. 이런 점에서 김 대표가 공석이던 중앙당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최근 임명하면서 당 체제 정비에 마무리한 것을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 당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 공전에 영향을 미칠 당무감사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논란거리였던 '대통령실 검사군 단 공천설' 등이 가라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인선 당시 "당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 위원회"라며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세월호 기억식’서 악수하는 이재명·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끝난 뒤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세월호 9주기...與 “안전 경각심을” 野 “국가 달라졌다”

### 생존자·유가족 9년 세월 위로

여야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9주기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것을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며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기

역은 엄중하다. 일상에서의 안전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 그러나 각자도생 사회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썼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

해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9년 전 오늘 ‘기만이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304명의 생애같은 아이들을 잃었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며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고 되물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더디고 기속한 9년의 시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다”이라며 “정치가 무능한 탓에 또다시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했다.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도 우리는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썼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27%...5개월만에 20%대

### 갤럽 조사...부정평가 65%

### 정당 지지율 국힘 31%·민주 36%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 때 29%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후인 4주차(15~17일) 조사에서 30%를 기록하며 줄곧 30%대에 머물렀지만, 20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p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노조 대응’·‘결단력·

추진력·독심’ (이상 6%),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 (이상 5%), ‘전 정권 극복’·‘경제·민생’·‘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주관과 소신’ (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 (28%), ‘경제·민생·물가’ (10%), ‘일본관계·경제동원 배상 문제’ (9%), ‘독단적·일방적’ (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 (6%), ‘소통 미흡’ (5%),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4%)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1%, 더불어민주당은 3%p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中어선 쫓던 北 경비정 NLL 침범...해군 경고사격에 돌아가

### 해군 고속정 中 어선 충돌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북 도서 인근 NLL을 침범했다. 이 경비정은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의 뒤를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접근해서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경고 방송과 경고 통신을 시도했고, 북한 경비정이 반응하지 않아 기관포로 경고사격 10발을 가하자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북한 경비정은 돌아갔지만,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하면서 우리 해군에서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인원이 일부 발생해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군은 당시 NLL 일대 시정(시정)이 100~200m 수준으로 불량한 상태에서 중국 어선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남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Sh수협**  
정직한 수산식품

## 별海별味

별해별미 양갱 3종 선물세트 |

별해별미 양갱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 속, 우리 바다의 건강한 맛을 양갱에 담았습니다.

www.shshopping.co.kr  
수협쇼핑과 sh수협마트에서 구매하세요.

준법감시심의필(안)-제230107호(2023.03.14)

연출사진입니다.

[ 5개입 세트(3종) ]

[ 18개입 선물세트 ]  
45g x 18개입(810g/2400kcal)

[ 12개입 선물세트 ]  
45g x 12개입(540g/1600kcal)

해삼·홍삼 양갱 45g x 5개

감태·감귤 양갱 45g x 5개

다시마·말차 양갱 45g x 5개